

〈운영전〉에 나타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안창수**

|| 차례 ||

- I. 머리말
- II. 안평대군의 삶과 의식세계
- III.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 IV. 액자소설의 기능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운영전>이 왜 운영과 김진사가 자신들의 사랑을 억압했던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서 집필되었다. 찾아낸 결과는 운영과 안평대군이 일탈적 성향을 갖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질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억압과 이에 대한 저항의 관계를 거치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동일한 삶의 조건에서 동일한 문제와 고민을 갖고 있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를 <운영전>의 액자소설의 구성방식과 연결시켜 본 결과, 운영은 안평대군의 삶과 인간 됨됨이를 보여주는 우의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운영전>은 운영의 사랑 이야기를 표면으로 내세워 일탈적 성향을 갖고 있던 안평대군이 사회의 규범적 질서와 이념을 넘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다가 마침내 파멸하고 말았던 삶의 과정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려 한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제어 : 사회규범, 이탈, 자유의지, 동일한 삶의 조건

1. 머리말

<운영전>의 마지막 부분에는 윤영과 김진사가 유영에게 자기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끝낸 뒤 수성궁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는 장면이 나온다. 수성궁은 자신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사랑을 꽃피웠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곳의 퇴락한 모습이 이들의 감회를 자극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안평대군은 윤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억압장치를 부여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는 이 장면의 진술은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는 부분이 자신들의 사랑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함께 진술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마치고 유영과 헤어지면서 읊었던 이별의 시에서도 이들은 다시 한 번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는 것으로 만남을 마무리하고 있다.¹⁾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는 대목이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윤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가 안평대군과의 사이에 형성되었던 인간적 교감이라는 맥락 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유영과 헤어지면서 김진사는 “꽃떠러진 궁중에 연작이 나라시니(花落宮中燕雀飛) 봄빛춘 옛과 갓히던 주인은 아니로다(春光依舊主人非)”라고 하여, 주인(안평)이 사라짐으로써 적막해진 수성궁의 경치를 보며 안평대군을 회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은 “고궁에 화류는 시 봄을 띄웠고(故宮花柳帶新春) 천지에 호화호른 조조 꿈 그온 더 드러도다(千載豪華入夢頻)”라고 하여, 봄빛 속에서 생각나는 호화로웠던 옛 일을 그리워하고 있다. 자신들의 애절했던 사랑의 기억을 호화롭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윤영도 안평의 영광을 반추하며 슬픔에 잠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안평의 몰락을 슬퍼하는 대목이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운영과 김진사가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는 것이 주군(主君)으로부터 인격적 가치를 인정받는 등의 대단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거기에 보응하지 못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해석되거나,²⁾ 안평에 의해 강요된 억압적 상황마저도 주군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는 중세적 사고의 한계로 해석되기도 한다.³⁾ 그런데 인물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인간적 교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을 주종관계 위에서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종관계에 의거해 보는 것은 결국 인물들의 행위나 사고를 중세적 이념의 가치나 사고의 틀로 재단해 버림으로써 인물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인간적 교감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운영전>을 이 작품이 생성되었던 시공간적 배경과 절연시켜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의 작품 외적 환경은 <운영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주종관계를 떠나서 이들이 나누었던 인간적 교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나 사고를 중세적 이념이나 가치로 재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군에 대한 의리나 충성, 또는 그에 입각한 죄책감 등이 아니라면, 운영과 김진사가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한 이유가 무엇일까. 운영과 김진사가 안평대군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운영과 김진사가 안평

2) 심치열, 운영전의 서사체계와 주제의식(『어문연구』 8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3, 39~42면)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고소설연구』 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15 0~151면)

전성운, 운영전의 인물성향과 비회의 정조(『어문론집』 56집, 민족어문학회, 2007, 13 3~135면)

3) 정출헌,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5, 109~111면).

에게서 자신들과 삶의 동반자적 동질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평을 윤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로 막는 적대자 내지는 억압의 주체로 보는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운영전>에 대한 올바른 독법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의 삶에서 동질성을 발견한 것은 기쁨이지 슬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영과 김진사가 슬픔에 잠긴 것은 무슨 까닭일까. 또한 윤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안평대군과의 인간적 교감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운영전>이 갖고 있는 액자소설로서의 구성방식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이 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쓰인다. 이런 점에서 <운영전>은 윤영과 김진사가 그들의 애절한 사랑을 통해 안평대군과 삶의 동질성을 발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II. 안평대군의 삶과 의식세계

윤영과 김진사가 안평대군에게서 삶의 동반자적 동질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작품의 전개양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윤영과 김진사는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마무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안평의 몰락을 슬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도 자신들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평대군의 삶을 자신들의 삶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윤영과 김진사가 안평대군을 자신들과 삶의 동반자적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운영과 김진사의 삶이 안평대군과 동반자적 관계 위에서 전개된 것이라면 안평대군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평대군은) 년이 십삼에 사궁에 출거하시니 사궁은 즉 슈성궁이라. 유업으로써 즈임하여 밤이면 글을 넓고 낮이면 혹 시부도 외오며 글시도 때 일직을 방과치 아니 하시니 그씨 문인 지스들리 그 문에 모다 당단고하를 비교하며 한가지로 노라 미양 밤이 깊혀 닭이 세 회 우도록 강논하기를 게얼니 아니 하시고 일일은 더군이 궁인의게 말하여 곶오디 텃하 빅 가지 지조를 고요흔 곳의 처하여 공부하여야 비로소 일우논지라 도문 박기 산천이 고요하고여 염이 드문지라 이런 곳의서 공부를 오로지 하리라 하고 즉시 십여간 정조를 정결이 짓고 일흠을 하여 곶오디 비히당이라 하고⁴⁾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은 유학을 공부하는 자로 자처하며 밤낮으로 공부에 힘써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성 밖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한다. 학문에 더욱 정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때 안평대군은 세속적인 것과는 절연된 자기만의 공간에서 오로지 학문에만 힘썼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평대군이 자기수련에 힘썼던 학문의 내용이란 무엇이였을까. 이것은 그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안평대군은 미색이 빼어난 궁녀 10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중용』, 『대학』,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역경』 등을 가르친다. 유학의 경전인 사서삼경을 가르쳤다는 것은 안평대군이 유학의 이념을 사상의 중심축으로

4) <운영전>(이재수 소장본, 『고전소설선』, 한국어문학회 편, 형설출판사, 1988, 172면). 앞으로 <운영전>에 대한 인용문은 모두 이 책에서 인용하며 다만 인용문의 끝에 페이지 숫자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삼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삶의 바른 도리를 익히는 공부에 힘썼다고 할 수 있다.

유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삶의 바른 도리를 익힌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 문제의 해답은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통해 추구하려 했던 시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시를 가르치며 그녀들의 시가 임금을 사모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서, 또는 격조가 아름답고 맑다고 하여 칭찬한다. 이 가운데에서 임금을 사모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한데 작품의 격조가 맑고 아름답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이 지은 시를 때마침 찾아 온 성삼문에게도 보여주는데 그는 궁녀들이 지은 시를 보고 총평을 하는 자리에서 안평대군이 칭찬한 격조의 높고 맑은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지조는 아모 써나 잇것마는 전조로붓혀 우금 녹빅여 년에 글노뻔 동국에 일흠난 지 몇 스람인 줄 아지 못흐되 모다 병이 만하 혹 흐리고 맑지 못흐거나 혹 맑으나 부잡흐여 모다 음눌에 합지 못흐고 성정을 닐는지라 맛당흔 글을 보지 못흐엇더니 이제 이 글을 보미 풍격이 청신흐고 의식 초월흐여 조곰도 진세 티되 업스니 이 필연 심궁 스람의 글이라 외인으로 상접지 못흐고 다만 곱히 드러 고인의 글만 보고 외와 마음에 즈득흐미라(175)

우리나라에 시로써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시가 갖고 있는 공통된 결점은 성정의 바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나 궁녀들은 세속과 절연되어 있음으로써 세속적 욕망이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성정의 바름을 유지함으로써 풍격이 맑고 생각과 뜻이 뛰어난 작품을 쓸 수 있었다고 했다. 격조가 높고 맑은 시는 성정의 바름을 드러내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세속적 가치나 욕망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격조가 높고 맑은 시는 작가 스스로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성정의 바름을 유지하는 것을 생활화 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드러나는 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세속적 욕망에 물들지 않고 성정의 바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운영전>은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하여 성정의 도야를 삶의 목표로 내세웠던 사대부들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했다.⁵⁾ 이것은 안평대군이 당시의 지배이념을 받아들여 성정의 바름을 유지하기 위한 심성수양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안평대군은 시를 가르치기 위해 미색이 빼어난 궁녀를 선발하였음에도 “일즉 혼 번도 첩 등으로 갖가이 흥미 업는지라(172)”라고 하며 이들을 애정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유학의 공부에 열중하거나 시작(詩作)과 서예에 몰두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인물로 나타나 있다.⁶⁾ 지배이념을 생활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안평대군은 유학, 그 가운데에서도 당시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의 이념을 규범적인 삶의 지표로 삼아 세상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공간에서 세속적 욕망에 물들지 않기 위한 심성수양에 몰두하며 임금에 대한 의리와 충성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규범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독실하게 노력했던 인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안평대군은 당대의 유명한 문인이나 선비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기도 했던 인물로도 나타나 있다.

5)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172~173면)

6) 각주 4)의 인용문을 참조할 것.

그썤 문인지스들리 그 문에 모다 당단고하를 비교흐며 한가지로 노라 미양
 밤이 깎허 닙이 세 해 우도록 강논흐기를 게열니 아니 흐시고(172)

또 그 것히 혼 단을 무우고 일흠을 밍시단이라 하니 더지 글을 힘빠 하고
 의리를 생각흐란 뜻지러라 잇썤 문장거필이 모다 그 단에 모도이니 문장은
 성삼문이 위슈오 필법은 흥효ㅣ 위슈라(172)

인용문의 내용으로 보면 안평대군이 문인이나 선비들과 활발하게 교류
 한 것은 학문을 토론하고, 문장과 서예의 재능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었음
 을 알 수 있다. 사람들과 교류함에 있어서도 안평대군은 명분을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는 것을 행동강령으로 삼아 규범적 질서를 지키는 데 힘쓰는
 인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는 회합의 분위기는 규범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독
 실하게 노력하는 안평대군과는 달리 흐트러진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날 밤에 대군이 빈직을 모호고 술을 흥홀시 김진스의 지조를 성히 일궜
 고 두 장 글을 너여 뵈니 모다 서로 들어보고 칭찬불이하여 혼 번 보기를 원하
 거늘 제 깃이 다 무릅을 찰어 공경흐를 닐우는지라 진시 그 등 나이
 적으므로 말석에 좌하여시미 다만 혼 벽이 7리엿더라 밤이 임의 깃흐미 등빈
 이 다 취하여 누엇거늘 첩이 벽을 쫓코 여러보니 진시 쏘흔 그 뜻을 알고 모를
 향하여 안거늘 첩이 봉서로써 더지니 진시 집어가지고 집의 도라가(178)

안평대군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 자리는 술잔치가 벌어져 상하의 빈
 객들이 크게 취해 흐트러진 자세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미일 문스드리 모도혀 주비를 난호고 시지를
 강논흐되(172)”라고 하거나, “금일 문스로 더부러 술 먹더니 문득 한 줄기
 푸른 연기가 궁중으로 니러나 혹 성첩에 어룡지고 혹 산쫓히 날니거늘
 (172)”이라고 하는 등 안평대군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 공간은 항상 술

잔치가 동반되고 있었음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범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독실하게 노력하는 모습과는 달리 안평대군은 학문의 토론과 재예의 연마를 빌미로 풍류를 즐기는 인물이기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이 공간은 벽 틈으로 비밀리에 운영과 김진사의 연서가 전달되기도 함으로써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금기가 깨어지는 일탈의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안평대군의 내부에 규범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고자 하는 욕구와 일탈의 공간에서 풍류를 즐기며 살려는 욕구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규범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심성수양을 위한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임금을 위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세속적인 삶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일탈의 공간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은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려는 것이다. 이것은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공간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안평대군이 도성 밖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비해당을 지은 것도 이러한 의식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규범적 질서를 지키려는 것과 일탈의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려는 것은 상호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의식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안평대군이 자신의 내부에 상반된 두 가지 성향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은 김진사에게 이백과 두보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서이다. 안평대군의 부름을 받아 수성궁을 찾아 온 김진사는 안평으로부터 역대 시인 가운데 종장(宗匠)을 가려보라는 질문을 받고는 이백(李白)을 천상의 신선으로 지칭하며 그의 시가 보여주는 탈속한 미의식을 높게 평가한다. 안평대군이 두보(杜甫)를 으뜸으로 삼는 세평(世評)을 들어 반박하자 김진사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두보의 시는 세속적인 선비들의 취향에나 맞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김진사와의 문답 끝에 안평대군은 마침내 “그대 말을 드르미 흥등이 창

활흠미 긴 바람을 타고 티청궁에 오름 갖도다(177)”고 하며, 두보보다 이백을 높게 평하는 김진사의 의견에 동조한다. 이백의 시가 탈속한 미의식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체의 세속적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의 일탈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이 김진사의 의견에 동조한 것은 자신이 일탈적 성향을 지닌 이백에게서 기질적 동류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일탈적 성향이 안평대군에게 생래적인 기질이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평대군은 임금의 아들로써 규범적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중심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규범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외부로부터 안평대군에게 부과된 강제적 조건이고, 안평이 표방하고 있는 표면적인 삶의 양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탈적 성향은 안평대군이 지니고 있던 생래적 기질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내부에서 작용하며 보다 본질적으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의 일탈행위는 수성궁에 열 명의 궁녀를 모아 시서(詩書)를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평이 “하늘이 지조를 너시미 엇지 홀노 남조의게만 잇고 녀조의게는 업스리오(172)”라고 하며, 여자와 남자의 재주를 평등하게 보고 열 명의 궁녀를 모아 글을 가르치는 것이 당시로는 일탈적 행위였다.

안평은 또한 “시녀 등 만일 하나하나 궁문 밧글 나간즉 그 죄 맛당이 죽을 거시오 밧스람이 궁인의 일홈을 알면 그 죄 또흔 죽으리라(172)”고 하며, 궁녀들을 철저히 세사와 격리시킨다. 세사와 격리되었다는 데에서 수성궁은 규범적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난 일탈의 공간이었다. 일탈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규범적 질서나 가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실제로 수성궁은 규범적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곳이었다. 이곳에서 안평은 궁녀들이 학문적 성취를 이루게 했고 그 결과 그 녀들이 자의식을 각성하여 규범적 질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도

록 했다.⁷⁾ 안평 스스로도 이곳에서 이름난 문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문사적 취향을 마음껏 충족시키며 자유분방하게 사는 일탈의 삶을 살았으며, 김진사의 일탈적 성향에 동조하기도 하는 등 일탈의 분위기를 수성궁에 도입했다.

그런데 세상과 격리된 공간에서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속적 욕망이 거세되고 성정의 바름을 갖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 궁녀들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이 실현된 이상세계를 구축하려 했고, 그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존재가치를 실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리학적 이념은 당시의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규범적 질서였다. 그러나 수성궁에서 궁녀들은 성리학적 이념을 실현하도록 교육받았음에도 오히려 교육을 통해 자의식을 키우며 규범적 질서로부터의 일탈을 꿈꾸는 존재로 변신해 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안평대군이 꿈꾸었던 이상세계는 일탈의 공간에서 규범적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추구됨으로써 자기모순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상세계의 파괴는 운영이 김진사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시작된다. 안평이 감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파괴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안평이 이상세계의 이상 징후를 처음 감지한 것은 운영의 부연시(賦煙詩)에 쓸쓸하게 사람을 그리워하는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이다. 안평대군은 “글은 본디 성정으로 조초 나미라(174)”고 하며, 글의 속성으로 미루어 운영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7) 운영은 “금서를 전일이 흐민 짓는 비 더욱 김흔지라 무릇 빈귀의 지은 바 글이 하나도 눈에 드는 거시 업서 지조의 능통흐미 이렷툃흔지라 시려금 남즈ㅣ 되여 입신양명치 못흐를 한탄흐고 한갓 흥안박명의 몸이 되여 한 번 심궁을 다드미 맛참니 고목과 갓치 석으를 원홀 쓰롬이라(184~185)”고 하며, 학문적 성취를 통해 자의식을 키워나갔음을 고백하고 있다.

다. 궁녀들에게 인육이 거세된 성정의 바름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던 안평으로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운영의 일탈은 범상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안평은 재주가 아까워서 더 이상의 추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문제를 적당하게 얼버무리고는 운영의 일탈을 눈감아 준다.

안평은 지적하여 경계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안평의 처리 방식은 운영의 일탈을 가속화시켰을 뿐이었다. 운영은 멀리서 그리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내는 궁녀들의 도움을 받아 가을철의 완사(浣紗)를 핑계로 김진사와의 만남을 추진했고, 마침내 김진사는 수성궁의 담을 넘어 운영과 만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담을 넘어 몰래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도망할 것을 모의하기에 이르게 된다.

안평이 자기의 이상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위기를 구체적으로 느낀 것이 이 시점이었다. 안평대군은 비해당(匪懈堂)을 짓고 현관을 달 때 문사들을 모아 글을 받았는데 이 때 김진사의 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 또한 운영이 지은 왜철쭉시에 지난 번의 부연시에서와 같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둘 사이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안평은 운영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캐어물으며 사실을 밝히려 한다. 그러나 운영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난간에 목을 매어 자살하려 하자 다시 운영을 용서하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

운영의 일탈을 안평이 거듭해서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평이 운영의 일탈을 거듭해서 용서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안평은 궁녀들을 통해 자신에게 부과된 규범적 질서를 수호하고 실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운영의 일탈도 눈치 채고 있었다. 그냥 둘 경우 자신의 이상세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안평은 이상세계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얼버무리듯이 그냥 넘어가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안평이 운영의 일탈을 눈치 채고도 그냥 넘어간 것은 운영의 일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나중에 운영의 일탈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안평이 또 다시 운영을 용서해 준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안평이 운영의 일탈을 눈감아 준 것은 사실을 밝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는 결과란 규범적 질서의 이름으로 운영을 처벌하는 것이고, 처벌은 운영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심각한 것이어야 했다. 안평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안평이 운영을 아끼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일탈을 감행하는 운영을 안평이 지속적으로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글은 본디 성정으로 조츠 나미라”고 하면서, 운영의 일탈을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운영을 용서하는 안평의 행위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운영의 일탈을 눈 감아 준 것이 운영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는 아직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운영을 아끼게 된 이유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안평대군의 내면세계로 한 발 더 들어가 보아야 한다. 안평대군은 지배질서의 최상층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지배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안평대군은 궁녀들을 통해 지배질서의 이념이 구현되는 이상세계를 실현하려 했었다.

일일은 디군이 뉘흐를 타 모든 시녀를 불너 곶오더 하늘이 직조를 너시미
엇지 홀노 남조의게만 잇고 녀조의게는 업스리오 금세에 문장으로 주허호는
지 만치 아니미 아니로디 썬여난지 업는지라 너희들도 쏘흔 힘쁘라 호고 이에
궁녀 둥 나히 껌고 즈식이 잇는 즈 십인을 썬ᄃᆞᆫ칠 시(172)

안평은 당시의 뛰어난 문장가들과 교유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에 대한 안평대군의 평가는 “문장으로 즈허흐는 지 만치 아니미 아니로디 썬여난 지 업느지라”는 것이었다. 당시의 문장가들이 안평대군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장가들에 대한 성삼문의 종합적인 평가에서처럼 당시의 문장가들이 성리학적 이념이 지향하는 바의 문학적 성취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안평이 열 명의 궁녀를 선발하여 문장을 가르친 것이 당시의 문장가들에 대해 느꼈던 실망감을 보상받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을 통해 지배질서의 이념을 실현해 보려는 것은 그 자체가 일탈적 행위여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안평이 궁녀들을 수성궁이라는 자신만의 공간 속에 가두어 두고, 자신과 교유하는 모든 문사들에게까지도 그녀들의 존재를 비밀로 부쳤던 것도 자신의 행위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안평대군은 규범적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탈을 꿈꾸며 일탈을 통해 자신의 이상세계를 구축하려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탈을 추구하려 했다는 것은 바로 운영이 지니고 있는 기질적 특성이었다. 안평은 운영과 기질적 동질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안평이 운영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감싸주었던 것도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기질적 동질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질적 동질성을 느끼는 것이 상대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운영의 일탈이 온전하게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안평이 지배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지배질서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진사의 하인인 특(慝)에 의해 운영과 김진사의 일탈이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써 안평과 운영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다. 운영의 일탈이 명백하게 밝혀지자 안평대군은 운영의 일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이 부분에서 안평의 반응은 뜰에 형장을 갖추고 운영을 위시해 운영의 일탈에 동조한 궁녀들을 죽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었다.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지배질서의 이념과 자신의 이상세계를 지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앞서 궁녀들이 자신들의 소회를 드러낸 초사(招辭)를 올리자 안평대군은 놀랍게도 또 다시 운영을 위시한 궁녀들을 모두 용서해 준다.

궁녀들이 올린 초사의 내용은 대체로 남녀의 정욕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서 귀천(貴賤)을 떠나 모든 사람이 갖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것으로 운영에게 죄를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운영의 곁에서 운영의 감정과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자란(紫鸞)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운영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게 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까지 하소연하기도 한다.

궁녀들의 초사를 보고 난 뒤 또 다시 운영을 용서했다는 것은 안평이 마침내 운영의 일탈을 이해하고 인정해준 것이다. 지배질서의 이념을 실현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꿈꾸었던 이상세계가 인간의 생래적 본능을 억누르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안평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 하는 운영을 통해서 규범적 질서를 넘어서 일탈을 추구하려는 생래적 기질이 사회적 책무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운영의 일탈을 확실하게 알고도 용서해주었다는 것은 안평이 규범적 질서를 넘어서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지배질서의 이념을 구현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오히려 규범

적 질서를 넘어서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이상세계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은 안평에게 새로운 도전이요 모험이었다. 지배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던 안평이 이제는 오히려 지배질서의 가치를 부정하며 지배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지향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배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상세계를 지향하게 될 때, 안평은 지배질서의 수호자에서 지배질서에 반발하고 도전하는 인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안평이 윤영이 처해 있던 것과 동일한 삶의 조건 속에서 윤영이 부딪혀야 했던 것과 동일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평은 이제 윤영과 기질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삶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윤영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안평에게 찾아온 이러한 변화는 안평을 윤영이 처했던 것과 같은 위기적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궁녀들을 통해 세상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탈을 꿈꾸었다 하더라도 안평은 그녀들을 통해 지배질서의 이념을 실현하려 했었다. 이것은 안평의 일탈이 지금까지는 지배질서 내에서의 일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평의 일탈이 왕자의 풍류로 너그럽게 설명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윤영과 삶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안평에게 찾아온 의식의 변화는 지배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지배질서에 반발하도록 조건지워져 있었다. 안평이 위기적 상황에 부딪혀야 하는 까닭이다.

안평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영은 안평에게 용서를 받은 그날 밤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만다. 윤영의 자살은 윤영 스스로 자신의 일탈을 정죄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존재를 지위버림으로써 자신의 일탈로 말미암아 야기되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일거에 종식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안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윤영의 자살은 지배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자신의 책무를 윤영이 대신해서 처리한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것

은 안평이 운영의 일탈을 용서하면서 감당해야 할 위기적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의 자살은 안평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안평은 운영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세계에 눈뜰 수 있었고, 그 결과 운영을 깊이 이해하고 운영과 삶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영의 자살 이후 안평의 행적은 작품에서 돌연히 사라지고 만다. 이 때문에 작품에는 운영의 자살에 대한 안평의 반응도, 지배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의 가치에 눈을 뜬 이후의 행적도 나타나지 않는다. 지배질서를 수호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에 앞장섰던 안평이 운영과의 관계를 통해 지배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의 가치에 눈을 뜨는 인물로 변모하기까지의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다룬 후 그 이후의 과정에서 안평을 제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방식이다.

안평이 작품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운영과 김진사가 유영에게 자신들의 애절했던 사랑 이야기를 끝낸 뒤 수성궁의 퇴락한 모습을 보며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는 대목에서이다. 수성궁의 퇴락한 모습은 운영의 자살 이후 안평의 행적이 어떠했든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질서를 넘어서 자유로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가치를 인정한 안평이 걸어야 하는 행적은 당시의 안목에서는 이단으로 지탄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규범적 질서는 왕자의 신분으로서도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으로 존재했던 것이고, 안평은 결국 그 벽에 부딪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다.⁸⁾

8) 안평대군은 대부분의 기록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부정적인 평가로 말미암아 몰락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인물이다. 안평이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했던 것은 그가 규범적 질서를 넘어서는 자유분방한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왕자의 신분으로서도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성공의 퇴락한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세계의 가치에 눈뜬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만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안평을 다시 등장시킴으로써, 안평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과 결과만 나오고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중간과정이 빠져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은 작품의 형식논리에 나타난 중대한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논리의 결함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 의도된 결과라면, 이 문제는 <운영전>의 구성방식과 작가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⁹⁾

Ⅲ.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운영은 무녀의 집에서 김진사를 처음 만나는 날 편지를 전해주며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운영이 어떤 성향의 인물이었던가를 아는 데 이 부분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첩의 본향이 남방이라 부미 첩을 스랑함미 제 즈녀 등 편벽되여 나가놀미
 호고즈 호는 바를 모다 신청호고 원림슈익와 미죽송음에 날마다 유완으로뻬
 일을 삼고 부미 숨강형실과 칠언당음으로뻬 가르쳐 익지중지 호시더니(184)

운영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고 했다. 그래서 “나가놀미 호고즈 호는 바를 모다 신청호고 원림슈익와 미죽송음에 날마다 유완으로뻬 일을 삼”으며, 사소한 행실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다. 부모는 운영에게 “숨강형실과 칠언당음”을 가

9) 이 문제는 IV. 액자소설의 기능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르쳐 운영은 일찍부터 사회의 규범적 질서를 익히는 데에도 힘썼다고 했다. 그러나 규범적 질서가 운영의 삶을 규제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 운영은 자유분방한 성향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십삼 세에 수성궁에 공녀로 들어오며 운영의 삶은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수성궁에서 운영에게 부과된 것은 “학문을 닦이되 잘못의리를 알고 능히 음늬를 삶히느(184)” 것이었다. 학문과 기예를 배워 규범적인 삶의 질서를 익히는 것이 운영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제란 물론 세상과 격리된 수성궁에서 인간의 욕망이 거세된 성정의 순수함을 도야하는 것이었다.

수성궁에서 운영은 학문을 익혀 안평대군을 찾는 문장가들의 글이 하나도 눈에 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는 성취감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나 운영은 대단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도 이것을 세상에 나가 펼칠 수 없고, 다만 수성궁에 갇혀서 홍안박명의 몸으로 고목처럼 썩어 없어지게 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규범적 질서가 부과하는 질곡에서 벗어날 것을 갈망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던 운영이 수성궁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일탈을 꿈꾸며 일탈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진사와의 만남은 운영이 일탈을 행위로 실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었다. 김진사는 탈속(脫俗)적 취향을 갖고 있는 인물로서 시(詩)에 있어서도 역시 탈속한 미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이태백을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하는 인물이었다. 운영은 김진사를 처음 볼 때부터 “포의 혁더로 추진상계(趨進上階)흐니 시가 날기 편듯흐고 당석비좌(當席拜坐)흐니 신선이 나림 갓흐지라(176)”고 하며, 김진사의 탈속하여 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모습에 매료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세속적인 가치와 평가에 매이지 않는 김진사의 탈속적 취향과 일탈을 꿈꾸는 운영의 욕망이 결합되며 이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도록 조건지워져 있었다. 운영은 수성궁에 들어오며 궁궐 밖의 사람과는 어떠한 형태의 교류도 할 수 없었고, 이것을 어길 경우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운영은 안평으로부터 세속적 욕망이 거세된 심성의 순수함을 간직하도록 교육받고 있었다. 육체적이며 정신적으로 부과되는 이러한 주문은 운영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강제 규범으로 작용하며 운영의 삶을 규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운영이 김진사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과된 규범적 질서에서 벗어나 일탈을 시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치열한 것이어야 했다.

수성궁에서 운영에게 부과된 강제 규범은 안평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다. 안평이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방해하는 억압자로 작용하고 있고, 운영이 안평에게 저항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안평이 운영에게 부과한 강제 규범은 당시의 사회적 규범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안평과의 인간적인 관계와 사회적 규범과의 관계라는 이중적 관계의 망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데에서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운영이 안평의 잔치에 참석한 김진사에게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운영의 편지를 받은 김진사가 수성궁에 출입하는 무녀(巫女)를 통해 답장을 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된다. 외부인과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되며, 만일 그 이름이 대궐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 해도 그 죄가 죽음에 해당된다는 금기가 지켜지는 수성궁에서 김진사에게 연서를 전하는 운영의 행위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다.

김진사의 편지를 받은 운영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미친 사람 같았다. 운영은 이 때의 상태를 “님으로 능히 말을 못히고 눈으로 능히 보지 못혀 눈물이 진히미 피가 나(179)”고, “(김진사를) 니즐 길이 엮셔 밋친 듯 취흔 듯(179)”여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고 했다. 일탈이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억압의 강도가 컸던 것이고 억압을 상쇄하기 위한 사랑의 감정도 그 만큼 강렬하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질제하기 어려웠던 운영의 감정이 부연시에 나타나고 이로 인해 안평에게 주의를 들은 것이 이때였다. 안평은 운영의 시를 보고 “홀노 운영의 글은 현언이 초창하여 스람 생각는 뜻지(174)” 있다고 하며, 자세히 추궁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겠지만 재주가 아까워서 그만둔다고 하며 주의를 준다. 이에 대해 운영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뿐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거짓말로 안평을 속이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이 거짓말로 안평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안평을 자신의 적대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안평이 부과한 규범적 질서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갈망하며, 운영이 안평을 자신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평은 “글은 본디 성정으로 조츠나미라 가이 숨기지 못홀거시나 그러나 너는 다시 니르지 말라(174)”고 하며,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경계하여 머무는 것으로 운영의 일탈을 눈감아 준다.

일탈을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경계하는 것으로 문제를 가볍게 마무리 지은 것은 안평이 운영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적 질서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갈망하며, 운영은 안평을 적대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서 안평의 호의는 운영에게 비껴 지나가고 있었다.

운영은 안평의 질책이 있는 그 날 궁녀들과 자기의 부연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창 밖에 있는 포도(葡萄)를 제목으로 하여 시를 한 편 지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실곳튼 스미로 난간을 좁으시니 뜻을 머무는 듯하고 (抽絲攀檻如留意)
열미 미친거시 구슬드리온 듯하니 정성을 본밧고져 호도다 (結果垂珠欲效誠)

만일 다른 썩을 기다려 벽벽이 변화 홀진디 (若待他時應變化)
모다 구름과 비를 타고 삼청궁에 오르리로다(174) (會乘雲雨上三清)

난간을 타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포도넝쿨을 보고 언젠가 때를 기다려 현실세계에서 탈출하여 세상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신선들의 세계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규범적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생각하는 운영에게 일탈을 경계하는 안평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평대군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오히려 궁녀들의 도움을 얻어 궁궐 밖 무녀의 집에서 김진사를 만나고, 김진사를 수성궁 안으로 불러들여 밀회를 계속 하며 일탈을 가속시켜 나간다. 연서를 주고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김진사가 수성궁의 담을 넘어 운영과 만났다는 것은 지배 질서가 부여하는 금기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운영과 김진사는 가을철 완사의 계절부터 이듬해 철쭉꽃이 피는 봄까지 수개월에 걸쳐 밀회를 계속하는데, 한 두 번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긴 시간을 두고 밀회를 계속했다는 것은 규범적 질서에서 벗어난 일탈의 행위를 자신들의 질서로 만들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안평대군과의 관계에서도 이들이 안평과의 거리두기를 본격화하여 자신들만의 이상세계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밀회가 계속되면서 운영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김진사와 함께 도망할 것을 모의하게 된다. 운영이 도망을 가려 한 것은 안평대군과의 인간적 관계를 모두 정리하려는 것이고, 사회의 규범적 질서에서 벗어난 일탈의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온전한 이상세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무렵 김진사는 비해당(匪懈堂) 상량문(上樑文)에서, 운영은 왜철쭉꽃을 보고 지은 왜철쭉시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출시킨다. 안평대군은 부연시 때에 이어 다시 운영을 꾸짖으며 김진사와의 관계를 따져

문고, 이에 대해 운영은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고 난간에 목을 매어 자살하려는 것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여기에서도 운영은 우선 거짓말로 안평을 속이는 것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은 속이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김진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운영이 거짓으로 속이려 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 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안평대군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최대치로 증폭되며 안평과의 인간관계도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도망을 모의함으로써 긴박감을 더해가던 사건의 전개는 김진사의 하인인 특(慝)의 간계로 운영과 김진사의 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며 급격한 반전을 거듭하다가 일순간에 종결된다. 처음의 반전은 안평대군이 규범을 어긴 운영과 궁녀들을 죽이려 하다가 그녀들을 모두 용서해 준 것이다. 운영을 위시한 궁녀들을 모두 용서해주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규범적 질서를 대표하며 운영을 억압해 왔던 안평대군이 운영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안평대군의 이러한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닥쳐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일탈을 생래적 기질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해의 중심인물이었던 안평대군이 운영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뀐 돌연한 변화는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안평대군이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므로써 운영은 이제 김진사와의 사랑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 운영은 안평대군에게 용서를 받았던 그날 밤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만다. 운영의 자살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 사실상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야기를 종결시키는데, 용서를 받았음에도 느닷없이 자살을 한 것이 두 번째 나타난 반전이다.

운영의 자살에는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안평대군이 용서해 주던 “그밤에 첩이 나건으로써 스스로 목미어 죽었느이다(193)”고 간략하게 기술

되어 있을 뿐이다. 운영의 자살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랑을 드디어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의 종말로 귀결되는 죽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일탈이 백일하에 드러나 안평대군에게 문초를 받으며 올린 초사를 보면 운영이 자살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첩의 초스에 왈 유군의 은혜 산궂고 바다궂거늘 능히 그 절을 직회지 못흐
오니 그 죄 하나 히오 전일 지은 바 글에 의심되를 유군기 뵈오나 맞춤니 직고
치 아니 호오니 그 죄 둘이오 서 궁 무죄흔 스람이 첩의 연고로써 죄를 혼가지
로 입게 하니 그 죄 세히라. 이 세 가지 죄를 짓고 스라 무슴 면목으로 스람을
더히리잇고. 만일 혹즈 아니 죽이셔도 첩이 맞당이 즈결히리이다(193)

인용문을 보면 운영은 자살하기 전에 자신이 지은 세 가지 죄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이 지은 죄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안평대군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정절을 지키지 못한 죄, ②안평대군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음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죄, ③자신으로 인해 서궁의 궁녀들을 죽음에 빠뜨린 죄이다.

세 가지 죄 가운데 ③의 죄는 궁녀들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자살의 원인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운영이 자살한 이유는 ①과 ②에서 찾을 수 있다. ①은 안평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정절을 지키지 못한 죄이다. 여기에서 안평의 은혜는 여자임에도 학문과 시서를 가르쳐주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돌보아준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혜택이 아니므로 안평에게 받은 은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살핌과 배려의 은혜를 정절과 연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살펴주고 배려해주었으므로 자신에게 정절을 지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힘의 횡포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논법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영이 생각했던 안평의 은혜란 무엇일까. 이 문제는 ②와 연결시켜 볼 때 보다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②는 안평대군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일탈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죄이다.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안평에게 사실을 밝히지 않은 죄를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군에 대한 의(義)를 다하지 못한 것을 죄로 인식한다는 말이다. 수성궁에서 “학문을 닦이던 잘못 의리를 알고(184)” 있었던 윤영이 의를 다하지 못한 것을 죄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윤영은 왜 하필 자신의 일탈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윤영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자신이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군에 대한 의를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군에 대한 의를 알고 그 의를 다하려 했으면 윤영은 처음부터 김진사와의 사랑에 빠지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안평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과 일탈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의를 다하지 못한 죄로 수렴되는 것이다.

그런데 윤영은 수성궁의 궁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주군인 안평대군에게 의를 다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 윤영은 “부인이 또한 스랑히시미 괴출에 다르미 업스오며 주군이 또한 심상이 보지 아니시고 궁중 스람드리 친히흐를 골육갓치(184)”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이 심곡에 밋치고 원이 흥히에 메여(185)” 수성궁에서 벗어날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윤영에게 수성궁과 그 주인인 안평대군은 자신의 길을 가로 막고 있는 적대자로 인식될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군과 궁녀라는 주종관계의 틀은 윤영에게 질곡으로 인식될 뿐이었고, 의

를 지키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진사와의 사랑은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탈을 실현한 것이고, 사랑이 깊어지며 운영이 안평대군과의 거리두기를 본격화 하고 있었던 것도 안평을 적대자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안평대군을 적대자로 인식하며 운영은 안평에게 정절을 지킬 필요도, 사실을 사실대로 고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탈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했을 때, 운영은 안평에게 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운영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안평을 평가하는 운영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탈이 백일하에 드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 운영은 안평대군이 자신의 일탈을 눈치 채고도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안평을 적대자로 삼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힘에 벅차서 안평이 자기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 다시 안평의 치죄를 받으며, 운영은 비로소 자신이 거둬해서 안평에게 용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안평이 자신의 적대자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평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운영은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고,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평에 대한 운영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일탈이 모두 밝혀진 뒤에 또 안평이 또 다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보는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평이 운영과 궁녀들을 용서한 것은 그녀들의 초사(招辭)를 보고 나서이다. 궁녀들은 초사에서 남녀의 정욕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규범적 질서의 위엄으로 이것을 규제하

는 것의 부당함을 항변하고 있었다. 세속적인 정욕의 발동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규범적 질서의 입장에서 볼 때, 공녀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운영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평은 공녀들의 초사를 보고 난 뒤 모두를 용서해준다. 이 순간 운영은 자신의 일탈을 용서하는 안평이 자기의 처지뿐만 아니라 고민의 깊이와 실체까지도 이해하며 감싸주는 것을 보게 된다.

새로운 사실에 눈뜨자 운영은 안평이 사실은 적대자가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평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감싸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운영은 안평에게 주종관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인간적 교감과 유대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운영이 안평에게 느꼈던 은혜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르러 운영은 안평이 이제 자신과 동일한 삶의 조건 속에서 동일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일탈을 사실대로 고하지 않는 등, 안평에게 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운영이 안평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인간적 교감과 유대를 느끼는 삶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운영의 초사는 운영이 적대자로 인식하던 안평을 마침내 삶의 동반자적 관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적대자로 인식하며 훼손되었던 안평과의 인간관계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로 회복되었던 것이다. 운영에게 주어졌던 삶의 질곡이 안평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점에서 안평과의 관계 회복은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김진사와의 사랑이 허용되며 운영은 드디어 규범적 질서와 지배이념으로부터 자신의 자유의지와 존재의미를 지켜낸 것이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꾸기 어려운 벅찬 기쁨이고 감동이었다.

그러나 운영은 용서를 받은 그날 밤 자결을 하고 만다. 목숨을 걸고 지키

려 했던 사랑이 성취되는 그 순간 운영은 놀랍게도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과 삶 모두를 마감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안평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운영의 사랑은 안평의 승인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었고, 운영과 삶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평은 운영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안평과의 관계 회복은 운영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안평과의 관계 회복이 문제의 끝이 아니었다. 운영은 안평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또 다른 절망을 보았던 것이다. 안평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억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억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춤아 바리지 못홀 비 네 가지라
 주군이 뜻을 기우리신 지 님의 오런지라
 그 가히 바리지 못홀 거시 하나이오
 부인의 스랑히시미 지극간절히시니
 그 가히 바리지 못홀 거시 둘이오
 화냥친게 밋츠리니 그 가히 바리지 못홀 거시
 세히오 죄 서궁에 밋츠리니 그 가히 바리지 못홀거시
 네히라 이 가히 가히 못홀거시오
 또 텃지 스이가 혼 그물 속이라
 승턴입지히기 전은 도망히여 어디로 가리오(189)

위의 인용문은 운영과 김진사가 도망을 모의하자 자란이 질책하며 한 말이다. 자란은 먼저 안평과 운영의 주종관계를 들고, 이것을 어길 경우 화가 부모에게 미치는 등의 징벌이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어디로 도망가든 규범의 망을 피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자란은 안평대군에게 초사를 올리며 “운영으로히여금 혼 번 김싱을 뵈야뻘 냥인의 원결히를 푸러주시면 주군의 적선이 이에 크미 업소오리이다(193)”이라고 했다. 안평대군이 마음만 먹으면 운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운영을 위시한 궁녀들에게 안평대군이 자신들의 삶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군이요 또한 사회의 규범적 질서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라면 운영이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안평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영은 안평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자살을 선택했다. 안평과의 관계 회복으로도 바뀌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운영은 안평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안평의 뒤에 버티고 서서 왕자의 신분인 안평까지도 포함하여 사회조직 내의 그 누구도 일탈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규범의 벽을 보았던 것이다. 운영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평은 규범적 질서에 반발하고 도전하는 인물로 변모해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안평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영이 안평의 뒤에 서서 모두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규범의 벽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것은 작품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운영이 안평을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규범으로 인식하는 수준, 즉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안평에게서 나온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상태에서 운영이 자살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운영이 자살했다는 것은 안평의 용서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운영이 안평으로서도 넘어설 수 없는 사회규범의 벽을 보고 절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운영은 이제 자신으로 말미암아 안평까지도 포함한 모두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운영에게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절망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운영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운영의 자살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규범에 대해 죽음으로써 항거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IV. 액자소설의 기능

<운영전>은 꿈을 소재로 함으로써 입몽과 각몽 부분을 경계로 작품이 두 개의 서술공간으로 나누어지는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른바 외부액자와 내부액자로 불리는 서술공간을 갖는 것이다. <운영전>이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먼저, 독자들에게 수성궁에서 벌어진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것인 듯한 착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기도 한다.¹⁰⁾ 그리고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반중세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심중한 무게를 희석시켜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하고,¹¹⁾ 역사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기도 한다.¹²⁾

<운영전>에 나타난 액자소설의 기능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운영전>의 작가의식과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운영전>은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부액자와 안평대군의 거처인 수성궁에서 유영이라는 선비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는 외부액자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액자는 안평대군의 성시(盛時)에 있었던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오랜 시간이 흐른

10) 정희정, <운영전>의 액자기능과 서술 상황(『한국언어문학』4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5, 264~267면).

김익환, <운영전>에 나타난 공간 배경의 의미(『우리말글』33호, 우리말글학회, 2005.4, 110면).

11)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고전문학과 교육』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8).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한성어문학』9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0, 81면).

12) 박기석, 운영전(『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10, 716~722면).

박일용, 앞의 글, 182~185면).

심치열, 앞의 글, 26~30면).

뒤 유영이라는 인물의 꿈을 통해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액자의 기능은 단순히 내부액자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하며 드러내려 했던 작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외부액자는 안평대군의 옛 집이었던 수성궁의 빛나고 화려했던 모습과 퇴락하여 쓸쓸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수성궁은 안평대군 옛 집이라. 당안성 서편이오 인왕산 아리 잇는지라. 산 천이 수려하여 룡이 서리고 범이 거려 안듯하며 사직이 그 남에 잇고 경복궁 이 그 동에 잇서 높히 니러시니 비록 높지 아니하나 그곳의 올라 굽어본즉 아니 보이는 곳지 업는지라. 스면으로 통혼 길과 저지거리며 천문만회 밀밀충충 하여 바둑을 헛친듯하고 별이 버러는듯하여 변화장려하미 이로 형언치 못홀 거시오 동으로 궁궐이 표묘하여 구름 스이에 은영하고 샹셔엿 구름과 맑은 안기 항상 둘러잇서 묘석으로 고은 티도를 즙랑하니 진죽 나론바 별유승지러라(170).

후원으로 드러가 스람 업는 곳의 니르러 높흔 더 올라 스면을 바라보니 이찌 님진년 왜란을 갓 지난 씨라 장안 궁궐과 만성데턱이 탕연이 뵈 곳지 만코 문허진 담과 찌여진 기왜며 폐흔 옷물과 깃튼 섬돌에 슈풀이 즙옥하엿고 님즈 업는 쏫흔 절노 뛰엿는디 다만 동편에 슈간 형각이 규연이 나뵈더라 (170).

<운영전>은 안평대군이 거처했던 수성궁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고, 화려함이 지극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수성궁은 왜란을 거치며 퇴락하여 사람도 거처하지 않는 폐허로 바뀌었다고 했다. 수성궁의 이러한 변모를 보며 우리는 임금의 아들로써 권세와 영화의 극을 누리던 안평대군이 몰락하여 사사(賜死)되었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후원으로 들어가 폐허가 된 수성궁을 보던 유영은 소동파(蘇東坡)의 시 <여산(驪山)>의 한 구절을 읊조리며 화려했던 수성궁이 퇴락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기도 한다.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에 있는 여산(驪山)은 당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가 꽃피었던 공간이다. 이 때문에 소동파의 시 <여산(驪山)>은 이들의 로맨스와 연결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소동파는 당 현종의 화려했던 영광을 반추하며 영화의 극을 보여주었던 공간이 퇴락하여 폐허로 변해버린 데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유영이 수성궁의 퇴락한 모습을 보며 안평대군이 살았던 영욕(榮辱)의 삶에 대해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폐허가 된 수성궁에서 유영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유영은 운영과 김진사가 계속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안평대군 성시지사와 진스의 상회하는 곡절을 좇서히(171)”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하여 시작된다.

그런데 운영과 김진사에게 이야기를 부탁하는 유영의 말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요청이 들어있다. 하나는 안평대군의 성시지사(盛時之事)를 말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슬퍼하는 까닭을 말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유영의 말에서 그가 안평대군에 대한 이야기와 운영과 김진사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고, 유영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싶어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수성궁의 퇴락한 모습을 보며 안평대군에 대한 관심이, 운영과 김진사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부탁은 함께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유영의 부탁은 관심의 중심이 한 쪽은 안평대군에게로, 다른 쪽은 운영과 김진사에게로 쏠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영은 안평대군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안평대군에 대한 이야기

와 윤영과 김진사가 중심이 되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인데, 이들은 중심인물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이야기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영과 김진사는 자신들이 중심이 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응답한다. 이 때문에 안평대군이 중심이 된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내부액자에서 나타나지 않고, 안평대군은 윤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중심인물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안평이 중심이 된 안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결과일까, 아니면 형식논리의 하자(瑕疵)일까. 이 문제는 <운영전>의 작가의식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영과 김진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중단되었던 외부액자의 공간은 유영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친 뒤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윤영과 김진사에게 그 비통해 하는 까닭을 물어보는 것으로 다시 이어진다. 이 부분에 나타난 유영의 물음과 김진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유영이 위로호여 갈오디 비록 유음지둥이나 냥인이 둥봉호여시니 지원을
필의오 슈적을 임의 제어호여시니 분완을 설호엿느니라 엇지 그 비통호를
긋치지 아니호느뇨. 뼈 시러금 인간에 다시 나지 못호를 한호느냐(194)

김성이 슈루이 스 왓 우리 냥인이 다 함원이 스호지라 명스에서 그 무죄호
를 궁축이 녀이스 호여금 인간에 다시 녀여보내고져 호나 디하의 낙도 인간의
느리지 아니커든 하물며 천상에 낙을 니르랴 이러므로써 세상에 나가기를 원
치 아니호엿노랴. 다만 냇일을 추렴호미 비회..... 디군이 호 번
피호미 고궁에 주인이 업고 오작이 슬히 울고 뼈 인적이 니르지 아니호니 슬
푸미 극호미오 (194~195)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인용문에 나타난 유영과 김진사의 질문

과 대답이 서로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처음 만날 때부터 운영과 김진사는 까닭 모를 슬픔에 잠겨 있었고, 유영은 그 까닭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리고 유영의 부탁에 대해 운영과 김진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래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애절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당연히 유영은 이야기가 끝난 뒤 운영과 김진사가 비통해 하는 것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 슬픔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비통해 하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진사의 대답은 유영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유영에게 자신들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사는 자신들이 비통해 하는 것이 자신들의 비극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안평대군이 몰락한 것을 슬퍼하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진술하고 난 뒤 흐느껴 울며 비통해 하는 사람에게 비통해 하는 까닭을 물어보니 안평대군이 몰락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이 대목의 착종(錯綜)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유영이 운영과 김진사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두 가지 부탁과 연결되어질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유영은 운영과 김진사에게 안평대군의 성시지사와 그들이 슬퍼하는 내력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러나 운영 등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뿐 안평대군이 중심이 된 안평대군의 성시지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끝낸 뒤 비통해 하는 곡절을 물어보았을 때에는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평대군에 대한 관심과 운영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제시한 뒤, 내부액자에서는 안평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내부액자에 이어 나타난 외부액자에서는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거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운영전>에서 외부액자는 안평대군이 중심인물로, 내부액자는 운영과 김진사가 중심인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작품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과정도 제시되지 않은 채 중심인물이 뒤바뀌는 것은 형식 논리의 중요한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러한 구성방법이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부액자에서 내부액자로 들어가며 안평대군에 대한 이야기는 운영의 사랑 이야기로 대체되고 있고, 내부액자에서 외부액자로 나오며 운영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의미는 안평대군의 이야기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운영전>의 구성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가 안평대군의 이야기와 서로 대체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는 않는, 즉 동일한 양상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치밀한 장치였던 것이다.

<운영전>의 구성방식을 운영과 안평대군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던 앞에서의 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작가가 의도했던 것의 실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석의 결과를 먼저 정리하면, 안평과 운영은 일탈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질적으로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삶의 조건 속에서 동일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짐으로써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안평과 운영은 사회의 규범적 질서와 이념을 넘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다가 마침내 파멸하고 마는 동일한 삶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운영전>이 외부액자와 내부액자로 구성되며 운영의 이야기와 안평의 이야기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과 안평과 운영이 삶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분석의 결과를 연결시켜 보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 그것은 운영과 안평을 동일 인물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탈을 꿈꾸다 마침내 파멸하고 마는 운영의 삶에 안평대군을 삶을 대입시켜 보아도 아무런 의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운영은 안평대군의 삶과 인물 됴됨이를 우의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운영전>은 대체로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표면에 내세우며 안평대군을 부정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를 지닌 작품이라는 해석이 나타남으로써¹³⁾ <운영전>의 작가의식과 주제가 새롭게 조명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안평대군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액자소설의 구성방식과 연결시켜 보았다. 그 결과 운영과 안평은 동일 인물로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운영은 안평의 삶을 우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운영전>이 운영의 사랑 이야기를 표면으로 내세워 일탈적 성향을 갖고 있던 안평대군이 사회의 규범적 질서와 이념을 넘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다가 마침내 파멸하고 말았던 삶의 과정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의 삶은 지배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의 가치에 눈뜨는 부분과 몰락하여 사라진 이후의 부분만 나타나고 있었다. 시작과 결말부분만 나타나고 비극적 파멸에 이르기까지의 중간과정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세상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탈을 꿈꾸며 자유의지를 실현하려다 파멸하고 마는 운영의 삶이 안평대군의 삶을 우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파멸에 이르기까지의 중간과정이 채워지며 안평대군에 대한 이야기가 비로소 온전한 형식적 조건을 갖추며 완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의 사랑 이야기가 안평에 대한 이야기를 완결시키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평대군이 <운영전>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

13) 박기석, 앞의 글, 718~720면.

주는 것이다. <운영전>은 수성궁의 화려했던 모습과 퇴락하여 황폐해진 모습을 대비시키며 안평대군이 살았던 영욕의 삶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이것은 <운영전>의 작가가 안평대군의 삶을 다루려고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안평대군의 성시지사(盛時之事)를 알고 싶어 하는 유영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던 안평대군의 삶을, 그것도 지배질서에 도전적인 삶의 과정을 바로 드러내어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작가는 운영의 사랑이야기라는 우의적 장치를 사용했던 것이고, 운영이 안평의 삶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액자소설의 구성방식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 글은 <운영전>이 왜 운영과 김진사가 자신들의 사랑을 억압했던 안평대군의 몰락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서 집필되었다. 찾아내 결과는 운영과 안평대군이 일탈적 성향을 갖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기질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억압과 이에 대한 저항의 관계를 거치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동일한 삶의 조건에서 동일한 문제와 고민을 갖고 있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을 <운영전>의 액자소설의 구성방식과 연결시켜 본 결과, 운영은 안평대군의 삶과 인간 됨됨이를 보여주는 우의적인 인물이었고, 이런 점에서 <운영전>은 운영의 사랑 이야기를 표면으로 내세워 일탈적 성향을 갖고 있던 안평대군이 사회의 규범적 질서와 이념을 넘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다가 마침내 파멸하고 말았던 삶의 과정

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려 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오신화>와 <하생기우전>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의 중요한 특징은 역사와 사회적 문제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¹⁴⁾ <운영전>이 안평대군의 삶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려 한 작품이라는 것은 <운영전> 또한 이러한 전기소설의 소설사적 맥락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전>은 우의만으로 된 작품은 아니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운영전>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오히려 운영의 사랑 이야기가 갖는 비극적 성격과 의미를 찾아보려는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운영전>이 형성되었던 시기에 이미 전기소설이 갖는 우의적 성격이 상당히 퇴색해가고 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의성의 퇴색은 전기소설이 더 이상 소설사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7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설이 전기소설에서 이탈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전기소설이 소설사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는 지적은¹⁵⁾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운영전>이 안평대군의 삶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려 한 작품이라고 할 때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과연 실제 인물 안평대군이 이탈적 성향을 갖고 지배질서와 이념에 맞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 사실과 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운영전>의 작가에게 안평은 그러한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4) <하생기우전>의 우의적 의미에 대해서는 안창수, 하생기우전의 문제 해결 방식과 작가의식(『한민족어문학』4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12, 151~192면)을 참고할 것.

15) 박희병, 한국한문소설사의 전개와 전기소설(『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4, 91~95면).

【참고문헌】

- 김익환, <운영전>에 나타난 공간 배경의 의미(『우리말글』33호, 우리말글학회, 2005.4, 110면).
- 박기석, 운영전(『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10, 716~722면).
-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172~173면)
- 박희병, 한국한문소설사의 전개와 전기소설(『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4, 91~95면).
-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한성어문학』9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0, 81면)
-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고전문학과 교육』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8, 111~137면).
- 심치열, 운영전의 서사체계와 주제의식(『어문연구』8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3, 39~42면)
- 안창수, 하생기우전의 문제 해결 방식과 작가의식(『한민족어문학』4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12, 151~192면).
-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고소설연구』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150~151면)
- 전성운, 운영전의 인물성향과 비회의 정조(『어문론집』56집, 민족어문학회, 2007, 133~135면)
-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5, 109~111면).
- 정희정, <운영전>의 액자기능과 서술 상황(『한국언어문학』4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5, 264~267면).

Abstract

The dialectics of norms and departure on <Un Yong Jeon>

Ahn, Chang-soo

This paper is written to resolve the problem why "Un Yong" and her lover "Kim Jin Sa" were sad at the fall of "An Pyong Tae Kun" even though "An Pyong" was the assailant who suppressed their love.

First reason, founded, is that "Un Yong" and "An Pyong" had the temperamental homogeneity because both of them had a will to depart from the norms of society and tried to realize the free will. The other is that "Un Yong" and "An Pyong" understood each other well through the process of revolt against the social norms and got to know that themselves had been in having the same worries and problems on the same condition of life.

When the result of analysis connected with the plot of <Un Yong Jeon>, one truth that "Un Yong" is the character who showed on behalf of An Pyong's life is revealed. Therefore <Un Yong Jeon> is the novel trying to talk about the life of "An Pyong" through the love story of "Un Yong".

Key-words : the norms of society, depart from the norms of society, the free will, the same condition of life.

안창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051)510-2613

csahn@pusan.ac.kr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